

한솔홈데코, 환경·원가절감 ‘두 토끼’ 잡았다

지난 21일 찾은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목화솜 같은 갈색 목재 파이버(섬유)를 두터운 이불 모양으로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는 성형 공정이 한창이었다. 이어 열압, 연마, 재단을 거쳐 가구-인테리어의 핵심 자재인 MDF(중밀도 섬유판)가 완성됐다. 익산공장의 MDF 생산량은 연 33만㎡, 국내 유통량의 약 18%를 차지한다. 권오원 한솔홈데코 익산공장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리사이클(재활용) 원료 사용 설비를 구축해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망과 글로벌 경쟁업체에도 뒤지지 않는 원가경쟁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가구-인테리어 자재 MDF “100% 리사이클 원료로 제작”

한샘 등에 도어용 보드로 공급 바이오매스 발전, 연 140억 절감 반려동물 바닥재 등 新시장 공략

80%를 리사이클 원료로 대체했다. 리사이클링 비율은 국내의 목재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목재 공장임에도 별채 목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한솔홈데코는 리사이클 원료 사용 비율을 내년까지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권 공장장은 “수년에 걸친 기술개발로 양질의 리사이클 목재 칩을 선별해 원료 물성에 맞게 설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원성된 MDF 일부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가구 도어용 보드(한솔 스토리보드)’ 생산라인으로 운반됐다. 가구 도어용 보드는 국내 최초로 슬롯 노즐 분사 접착 방식을 적용해 가공 품질을 세계 최고



한솔홈데코 익산공장 관계자가 MDF(중밀도 섬유판) 제조 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민경진 기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솔홈데코는 이런 제품들을 대형 건설사와 한샘 현대리바트 등 주요 인테리어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권 공장장은 “MDF부터 12차 가공 제품까지 일괄생산체계를 구축한 것도 원가경쟁력을 높인 비결”이라고 했다.

◆20년 전부터 선제적 ESG 경영 실현 한솔홈데코는 한솔그룹의 친환경 건축 자재 전문 계열사다. 연매출은 2500억원 규모다. 이 회사는 2000년대 초부터 익산 공장을 친환경 공장으로 단계적으로 탈바꿈시켰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친환경 경영의 대표적 성과다. 익산공장은 목재 기반의 친환경 연료를 소각해 연간 37만톤의 스팀을 생산하고 있다. 스팀으로 발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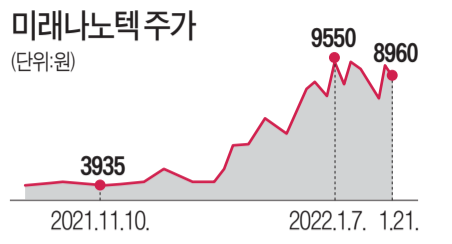
터빈을 돌려 연간 2만5000MW(메가와트)의 전력을 얻는다. 이 업체가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절감하는 에너지 비용은 연간 약 140억원에 달한다.

생산라인 등 공장 전반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2019년부터 연 5%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친환경 성과다. 이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재판매대 큰 수익도 내고 있다.

한솔홈데코는 기업 간 거래(B2B) 중심의 전략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 중심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기업으로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부상을 방지하는 바닥재 ‘펫마루’ 등 혁신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익산=민경진 기자

미래나노텍, 배터리 양극재업체 인수

제엔케이 지분 85% 365억원에 나노분말 첨가제 LG엔솔에 공급



광학필름 전문기업 미래나노텍이 2차전지 양극재 제조 벤처기업 제엔케이의 지분 85%를 365억원에 인수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제엔케이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금속물질 아홉 종류 중 수산화리튬과 텅스텐, 지르코늄 등 세 종류를 0.2μm(마이크로미터)의 나노 단위로 분쇄해 LG에너지솔루션에 공급하는 회사다. 올해부터는 삼성SDI에도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한다.

2016년 11월 설립된 제엔케이는 분쇄 설비 설계부터 생산라인 구축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다. 원재료 투입에서 제품 포장까지 한 개 라인으로 구성해 완성품의 공기 및 수분 접촉을 최소화했다. 전자석 탈철 기능을 강화해 이물질이 섞이는 것도 막았다. 경북대와의 산학협력을 통해 고객사가 요구하는 품질의 원료를 생산한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엔케이는 2019년 벤처기업 인증, 2020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을 받고 대구스타트업으로 지정됐다.

이번 인수는 대규모 설비 투자용 자금이 필요한 제엔케이와 신성장동력을 찾는 미래나노텍의 수요가 맞아떨어지면 시너지가 예상된다. 제엔케이는 2차전지 산업이 커진 지난 5년 사이 2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작년 매출은 250억원으로 추정

된다. 최근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단행해 올 2분기부터 수산화리튬의 경우 연간 1만5000t 생산능력을 갖추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대표는 “2차전지 수요 증가로 향후 10년간 10배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양극재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며 “광학필름 사업으로 대기업과 수십 년간 협업해온 미래나노텍의 영업력과 자금력, 제엔케이가 보유한 기술력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꾸준한 연구개발과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나노텍은 2002년 8월 설립된 광학필름 전문기업이다. 폴리에스테르(PET) 필름에 패턴을 가공한 광학필름을 연간 120㎢ 생산한다. 삼성전자 QLED 8K TV 모델에 들어가는 기능성 필름을 전량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2차전지 배터리팩 필름, 양극재용 특수 첨가필름 등을 개발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미래나노텍이 작년 매출 4500억원, 영업이익 350억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텍스트·음성자료, 동영상 콘텐츠로 자동 변환”



‘영상제작 SW’ 웨인힐스벤처스 삼성·LG에 공급, CES서 ‘혁신상’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사용자가 늘면서 영상 제작 수요도 많아졌다. 웨인힐스벤처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를 동영상 디지털 콘텐츠로 자동 제작·변환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스타트업이다.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텍스트를 단락·어절별로 분석한다. 그 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영상·음원 등을 검색하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구조다. 이수

민 웨인힐스벤처스 대표(사진)는 “고객들이 텍스트 자료를 소프트웨어에 넣기만 하면 완성된 동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며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보다 90% 이상 제작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을 영상으로 전환해주는 기술(STV)도 확보했다. 이달 초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혁신상’도 받았다.

최근 이 회사는 메타버스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AI휴먼(가상인간) 영상 합성’ 기술로 사용자가 직접 스마트폰에서 녹화한 파일(MP4 형식) 콘텐츠만 있으면 가상의 배경 공간과 3차원(3D) 가상 캐릭터를 만들어 메타버스 공간에서 개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많은 고객사도 확보했다. 대기업들의 제

품 사용 설명서나 은행 및 보험사의 약관을 영상으로 만드는 데 쓰였다. 블로그 작성자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영상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2019년 설립 이후 매년 실적이 늘면서 올해 32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영상미디어 및 비디오커머스 분야에서 일하다가 2019년 웨인힐스벤처스를 창업했다.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제작자들이 밤샘 작업을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다 쉽게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없을까란 고민에서 창업하게 됐다.

그는 “이미 동영상 콘텐츠가 모든 지식 카테고리 대세 포맷이 되고 있다”며 “해의 진출 등으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세계 첫 ‘뿌리는 탈모약’ 보령제약, 내년 국내 출시

보령제약은 다국적 제약사 알미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뿌리는 탈모약 ‘핀쥬베’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국내 품목 허가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핀쥬베는 스페인 제약사 알미라가 스프레이 제형으로 개발한 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제다. 세계 1위 남성 탈모 치료제인 미국 머크(MSD)의 ‘프로페시아’와 같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을 쓴다. 탈모 부위에 직접 뿌리는 만큼 먹는 약보다 부작용이 적는데도 효과는 비슷하다고 보령제약은 설명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핀쥬베 투여 24주 후 특정 부위의 모발 수가 투여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게 임상시험에서 확인됐다”며 “효과가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탈모약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했다. 핀쥬베는 작년 이탈리아에서 출시됐고 독일,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서도 출시 허가를 받았다. 현재영 기자

에이비엘바이오, 항암신약 임상 2상 시동

美서 이중항체 항암제 임상

에이비엘바이오가 발굴한 항암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2상에 들어간다. 4년 전 이 기술을 사들인 미국 바이오 회사가 현지 임상을 수행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 기반 항암제 ‘ABL001’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을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ABL001은 에이비엘바이오가 2018년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상업화 권리를 트리거테라퓨틱스에 넘긴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이다. 트리거테라퓨틱스는 이후 나스닥 상장사인 콤파스테라퓨틱스에 합병됐다. 이번에 ABL001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주체는 콤파스테라퓨틱스다.

ABL001의 국내 임상 속도는 미국보다 빠르다. 국내 상업화 권한을 확보한 한독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이중항체 신약후보물질이 임상에 들어간 건 ABL001이 처음이다. 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미국 임상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임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엘피사이언스는 콤파스테라퓨틱스가 확보한 글로벌 권리가운데 중국 권리만 따로 떼어내 현지에서 임상 2상을 수행하고 있다.

ABL001은 혈관생성억제제(VEGF)와 신생혈관조절단백질(DLL4)를 동시에 공격하는 이중항체 기반 항암제다. 암 조직 내 신생혈관 생성을 억제해 암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다. 이산화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약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ABL001 외에도 고형암 치료제로 미국에서 2개(ABL503, ABL111) 파이프라인에 대해 임상 1상을 하고 있다. 퇴행성 뇌질환 신약도 개발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에 1조2720억원 규모로 기술 이전한 파킨슨병 치료제(ABL301)가 대표 주자다. 한재영 기자

KEY to HAPPINESS

현대백화점 설 선물로 행복을 전하세요

현대식품관 바이어가 매일 새벽, 최상의 가치만을 직접 선별합니다

디지털 특선집에서 증강현실로 확인하기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H.Point 앱 설치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세요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대한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i Mall | 현대백화점명세진 | 한림 | 대한침당점 | H매장점 | 현대리바트 | 현대엔탈케어 | 현대그린푸드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반어택마을점